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6. 가을(Autumn)

각 사람은

각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으며,
자기가 느끼는 자기 마음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각 사람은
사랑하고 싶은 원대한 소망이며, 신성한 자유의 표지입니다.

각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분과 비슷하게 지어졌으며,
사랑을 살아가도록 불리웠습니다.

각 사람은
죄악과 불행으로 어둠 속에 절규하고 있을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사막을 건너가는 고독과 침묵 속에서라도, 사랑의 표지입니다.

각 사람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찾아오는 고통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의 표지입니다.

각 사람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용서의 식탁으로 유혹하는, 탕자입니다.

각 사람은
온유하신 그리스도를 빵과 포도주의 식탁으로 매혹하는, 사랑받는 딸, 아들입니다.

각 사람은
성령의 불꽃을 나눔의 식탁에서 불태우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 자크고티에(Jacques Gauthier) -

8월 14일, 제14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미사가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약 15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회관 한쪽에는 사진 전시회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미사 마지막에는 소해금 연주와 북소리 연주가 이어져, 우리 마음 안에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그분들과 하나 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안타깝게도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더욱 필요함을 느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돌보시고, 물도 자주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박 빅토리아 수녀 드림.



요셉의원 이웃사랑센터 봉사를 시작하면서...

여사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에서 서울역 쪽방촌 봉사 요청이 왔다. 요셉의원, 우리에게 너무나 낯익은 곳, 선우경식 선생님과 영등포에 있었던 과거의 요셉의원이 바로 떠올랐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요셉의원은 서울교구 빈민사목관할로 넘겨졌고, 지금은 서울역 부근에서 그분의 뜻을 이어 요셉의원이 운영되고 있다. 그 부설기관의 하나로 이웃사랑센터가 쪽방촌에 자리하고 있는데,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소속 수녀님 한 분이 관리를 맡고 있다.



정성훈 스텔라

행려자들이 많기로 유명한 그곳, 우리는 셋째 주 금요일에 봉사를 하기로 하였고, 7월 17일 첫 방문을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금요일에는 50가구에 점심 도시락으로 샌드위치를 마련해서 나누는 것이나, 여름 무더위 관계로 과일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했다.

우리가 거주하는 가리봉동도 열악하고 쪽방으로 소문난 곳이지만, 서울역 주변의 쪽방촌은 참으로 입이 벌어질 정도의 환경이었다. 식탁 테이블 4개 정도 붙여진 크기의 작은 방에 창문도, 바람구멍 하나도 없이 거기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하는 곳이었다. 샤워실, 화장실은 공용. 양편으로 6-7집 씩, 12-14가구가 한 층에 있고, 가파른 계단으로 5층까지 있었다. 거기 여인숙이란 이름하에 가난 한 이들이 월 50만원씩 내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니, 벽에 “담배 실내에서 피우지마! ***야”라는 쌍욕과 함께 낙서가 되어 있기도 하다.

너무 공간이 좁아 들어갈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오직 선풍기 하나에 의지한 그들의 공간에 여름에는 더욱 민망하기까지 했다. 입구 방문 하나가 환기창이며 출구이기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치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도시락 나눔은 주로 여성들에게 했고, 문 입구에서 전해주고 돌아와야 했다. 한 곳, 두 다리가 절단된 화가의 방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 다른 방에 비해 좀 넓어 벽에 화선지를 고정해 놓고 수묵화를 그려 전시회도 하고 수익금은 “동자동 사랑방”에 후원을 한다고 했다.

가난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더 헤아린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것 등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날 우연히, 방문 중에 쪽방촌을 방문한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그의 방문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틈이 벌어질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서원 후 첫 사도직

18살이 되도록 거의 항상 ‘음, 음’ 소리밖에 내지 못하던 아이가 난생 처음 전화로 ‘엄마, 오-세-요’라고 말을 하여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게 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음성 장애가 있어 갈라지고 짜지는 목소리를 나이가 들 때까지 그냥 사느라 바빠서 어떻게 해 보지도 못했던 분이 드디어 자신을 돌볼 기회를 갖게 된 것, ‘엄마, 택시 타’와 같은 구절을 메아리처럼 반복하기만 했던 자폐증 아이가 우리 수녀원의 똥땡이 고양이들을 쫓아다니며 고양이 공포증도 극복하고 ‘할퀴! 조심!’(고양이가 할퀴니까 조심해야 한다)이라고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말들을 하게 된 것 ...



신지호 딸과네아

복지관 언어치료 소임을 반 년 동안 해 오면서 상대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통해 하느님과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언어 치료 클리닉에 실습하러 갔을 때, 대표 치료사가 마지막 치료를 마치고 치료실 문턱에 아주 지친 모습으로 기대어 떠나는 아이를 배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말 없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가, 겁에 질려 건너편에서 관찰하고 있던 저에게 갑자기 묻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치료를 미친 듯이, 아주 미친 듯이, 아이의 세계에 빠져서 해본 적이 있어요?” 목소리는 성가신 듯 내뿜는 투였지만, 눈은 꿈꾸듯 저 먼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머리를 굴리고 온힘을 다하면요, 더듬는 아이를 따라서 나도 말을 더듬게 되어요.” 그는 실로 말을 찾는 데 미세하게 어려움을 겪는 듯 보였습니다. 성격이 좀 괴팍한 분이었지만, 실습생으로서 제가 관찰했던 언어치료사들 중에 가장 멋진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언어치료 교과서에 ‘말더듬이였던 유명인’이 있었는데, 모세도 그 중 한 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게 되고, 치료사 자격증을 따서 일하게 되면서 늘 말쑥을 가까이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말을 못하다가 주님 은혜로 말을 하게 된 이들의 글들을 읽을 때면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줍은 성격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말을 잘 못했으니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고, 그를 들을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그 피난민 앞에서 너는 입을 열려 말을 하게 되고, 다시는 병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렇게 그들에게 예표가 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에제키엘 24, 27)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하느님의 초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노력하는 사람.” 누구나 꿈꾸지만 쉽게 선택하고 걸어갈 수는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세상이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과의 경계는 늘 모호하고, 식별의 기준은 내 중심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임지훈(베드로)
FMM 영적가족 피정 후

매일 부딪치는 화두 중 하나는 ‘감사’였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힘이 아니라 주위 분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의 자리에 조금씩 익숙함과 뻔뻔함이 들어앉았습니다.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처럼 여기는 착각을 하듯, 어려움을 이겨낸 것도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보다 더 큰 욕심을 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원망과 불만이 앞섰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간절히 찾던 마음도 희미해졌습니다.

뻔뻔한 제 모습을 돌아보고 있을 때 우연히 FMM 영적 가족 피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피정의 주제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를 마주하고 무척 놀랐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 계셨는데, 정작 제 시선은 늘 바깥만 향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한계와 상처를 외면했고, 마음 아플까봐 두려워 내면의 바닥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던 저의 자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정을 시작하며 저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고, 아프더라도 외면했던 내면의 바닥을 한 번만이라도 바라볼 용기를 주소서’. 첫날 ‘거울 천막’을 지나며 인정하기 싫었던 제 모습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도 이미 그분이 저를 지켜보시며 함께 계셨음을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감사였고, 동시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피정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제 자신에 실망하고 한계를 인정하기 싫을 때마다 늘 함께 계시는 분이 있음을 떠올립니다. 다시 떠올리려는 작은 노력이 제 안의 뻔뻔함을 허물고,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 피정 초대를 통해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분의 선물은 제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어, 알 수 없는 시점과 장소에서 거저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총은 언제나 제 예상을 넘어서는 'Beyond'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서로 다른 풍습과 사고의 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적응하는 중이지만, 처음만큼 어렵지는 않다고 고백한다. 미사를 위해 성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 주변에 빈자리가 많은데 굳이 바로 옆에 와서 앉는 사람들, 이들은 사람 곁이 좋아서 다정하게 찾아와 인사하 며 앉는다.

선교 체험으로 기회를 얻어서 온 이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4년이란 시간을 돌아보니 그다지 긴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특별한 사도직을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모임 안에서, 때로는 수도자를 필요로 하는 어느 곳이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곳에 현존했다. 특별히 지면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몇 가지는 이곳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한인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경험한 하느님 체험이다.



박인옥 마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 년 전부터 김대건 성당 한인 공동체 사제의 공적으로 신자들이 미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함께 지켜보게 되었으며, 요하네스버그 교구 총대리 신부님의 조언으로 미사를 봉헌할 사제가 없는 주일에 내가 말씀의 전례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중에 아홉 명의 자매들과 평일에 복음 나누기를 시작했고, 매주 한 번의 만남이지만, 복음과 함께하는 생활 나눔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와 신앙의 성장을 돕고 있다. 작년에는 세례성사를 원하는 자매의 요청으로 교리를 해주었는데, 성실하게 교리를 받아들이고 성경 필사와 기도문 암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고, 글라라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지금은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두 명 어린이를 위해 교리를 하고 있다.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성당 공동체 형제자매들은 이곳 현지 신부님을 초대해서 영어 미사를 봉헌하고 있지만, 한국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다. 아주 가끔 기회가 되어서 한국어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을 때, 모두에게서 잔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아무리 외국 생활이 오래되었어도 우리말 미사와 강론은 무엇이 달라도 다름을 나도 안다. 그리고 매일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문자로 말씀 나누기를 진행하는데 열두 명이 함께하고 있는데,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천하는 사람은 그 맛을 알아가는 것 같다.

선교사로 산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존재하든 모든 순간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남겨주신 계명에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때때로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것들로 마음 상하고, 서로 상처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내 옆 사람도 불렀음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수도생활 25년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도반들께 감사드린다.



창립자 말씀

주님께서 당신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모두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과 일치해 있는 것이며 우리 기도를 주님의 기도에 일치시키고 우리의 희생을 주님의 희생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2026년 후원자의 날 알려드립니다

일시: 2026년 10월 17일(토) 오전 11시 - 후원자들을 위한 미사

내용: 미사 후 점심식사

참석자: FMM 후원자님들, 수녀님들, 가족·친지들 등

준비물: 함께하고자하는 따뜻한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

** 오시는 분들은 참석 여부를 후원회 연락처로 전화, 문자, 카톡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디 오셔서 함께하시어 나눔의 기쁨을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처 (010-2821-8174)

문의사항은 담당자 박 빅토리아 수녀에게 연락 주십시오.

** 차량은 주차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실 분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아래 은행으로 입금자명(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분)으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은행 072-475366-13-401 농협 100072-51-060834

국민 362737-04-000395 하나 355-910035-52905

신한 140-007-059957 우체국 013078-01-001984

기업 420-017389-01-018 제일 453-20-002924

담당자: 010-2821-8174 수녀원 : 02-852-0939

E-Mail : fmmecokor@daum.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	김상률	김진숙	박순옥	손은주	유홍순	이재영	정인순	최일순
(주)가나스틸	김상태	김재송	박순자	송경수	유희숙	이재욱	정재훈정지호	최재석
(주)게릴페이퍼	김셋별	김철형	박승민	송비아	유희경	이정란최윤	정진명	최정순윤각의
(주)인동FN	김선식	김추양	박연애	송순이	육동배	이정숙	정진숙	최지은
(주)퓨처로직스	김선옥	김춘자	박영희	송승윤김서현	윤계남	이정원	정찬영	최효순
WYD서울고구	김성미	김해자	박원서	송정애	윤규현	이정준	정혜경	추영숙김주년
가정동성당	김성미신사회	김현숙최지명	박윤선	송재영	윤명자	이정하	정희파키스탄	추종현
가좌동성당	김성애	김현주	박은정	송혜경	윤명희	이정희	조건희최취선	태계남
가톨릭나사업	김성용	김현희	박은희	신동규	윤문섭문선미	이종욱	조광태	하봉남
강경아	김성원	김혜정	박재용	신문경	윤미숙	이종윤	조규진조남섭	하옥경
강미현	김수경	김호성박정식	박정순임현서	신승일	윤보미	이주남	조금자	한국순교성당
강숙자	김수영	김호식	박정연	신아영	윤봉수	이주호	조나현	한규영
강순애	김숙경	김호진	박주형	신용숙	윤순희	이지연	조봉레이성호	한기훈
강신연	김순철	김희재	박준우	신유라	윤임순	이지인	조상위	한상국
강연호	김안선	나숙희	박진	신재진	윤정미	이진욱	조석금	한순옥
강원석	김애자	나정순	박찬순	신정성당	윤정희	이재화	조성자	한순희
강항주	김에리사	남가경	박찬주	신주선신유경	윤한희	이태금	조영주	한영미
검암성당	김영순	남보라홍은숙	박찬희강동연	신주화	이갑수	이필단	조원균	한옥선
고성철	김영옥	남옥자문주명	박태분최민정	심귀선여은지	이경재	이향남	조인주	한은주
고승희	김영운손연희	노미경	박해필	안미령	이계호	이해령	조재호	한진경
고은하	김영자	노병덕노민규	박항식	안성민이재익	이광희	이해일	조정희	한효정권오현
고재영	김영재허갑수	노봉근	박현심	안양금	이남순	이현준이창석	조진면	함광훈
고지영	김영주	노석심	박현애	양기홍	이동준	이혜숙	조진상안지영	허순자
고혜란	김영준김정애	노인숙	박현희	양미경	이동현	이홍식	조현주	허재숙장효선
공창용	김영춘	노정애	박희수	양윤식	이명희	인용식	조혜영	허정자
공해용	김영한	단체지원금	박효정	양윤재	이미란	인천교구	조혜인	현경미
구용희	김옥림	당효준이순희	박희순	양종한	이민희	인천루게치오	조화숙	홍말숙
권고은	김옥주	류정이	방웅	연수성당	이병철	인혜정	조희공	홍명숙
권순영	김용수	마선안	방진	연희동성당	이상문	임승욱	조희무	홍미경
권순익	김용식	마전성당	배수정	염은경	이상숙	임지원	주성미	홍민선
권영오	김용자윤소라	명영희	배윤숙	영적가족	이상욱	임지훈	진숙인	홍민희
권정신	김용주	모틀초경	배장열	영적가족8기	이상호	임태원	찬미	홍성란
금부동	김용준	문경애	백미자	영준금숙	이선영	임혜숙	찬미예수님	홍성실
금창호	김용기	문미형	백성대	오복연	이성구	임호	채성훈	홍세아
기중현	김원란	문상원	버닝하트이대	오소연	이성남	장민정	천명덕	홍승희
김경순	김원숙	문성식	변복자	오숙자	이슬기	장세욱	천정원	홍영용
김경재	김윤기	문성재	변태식	오승훈	이승욱	장영문	청라3동	홍익기
김경희	김인희	문준식	부산아름	오영희	이승은	장원태	청라빈첸시오	홍정임
김광기	김잔디	미국인지회	사랑나무치과	오옥형최민귀	이승재	장현아	최규범	홍종걸
김귀선	김재욱	만들레복지	서덕순서득순	우영희	이승희	전순임	최금영	홍춘자
김기정	김정매박치현	민정웅	서명자	원ENG(김진식)	이안나	전순희	최명숙	황경희
김나린	김정민	박금난	서춘자	원당동성당	이연실	전은희	최민자	황세원
김나현	김정숙	박기선	서태진	원세경	이연옥	전주란	최선애	황영근
김남기김민정	김정애	박문주	서향란	유미경	이영복	전혜향	최성순	황윤서임이데레
김덕칠	김정웅	박병옥송덕규	서혜경	유병춘	이영애	정강호	최숙규	황의택
김도상	김정임	박상미	서혜석	유성재	이옥순	정경원	최순애	황인복
김도영	김정택	박선정	석남동재속회	유영재	이옥자	정경필	최애란	황혜숙
김동현	김정화	박성준	석남빈첸시오	유은분	이원순	정동락	최여진	
김득수	김종연	박성현	석상령	유은정	이윤신	정미경	최영남	
김득현	김준희	박소연	성영신	유주영	이윤옥	정미영	최영운	
김민규	김지선	박소정	성영주	유주영이성혜	이은미	정성민	최원단	
김별	김지영	박소진	소재록	유채영	이은정	정소영	최원철	
김봉연	김지은	박수민	손순덕	유춘성	이은주	정영숙	최은실	
김봉현	김지혜	박수인	손은영	유혜정	이임수송재용	정은희	최인석	
김득현	김준희	박소연	성영신	유주영	이윤옥	정미영	최영운	
김민규	김지선	박소정	성영주	유주영이성혜	이은미	정성민	최원단	
김별	김지영	박소진	소재록	유채영	이은정	정소영	최원철	
김봉연	김지은	박수민	손순덕	유춘성	이은주	정영숙	최은실	
김봉현	김지혜	박수인	손은영	유혜정	이임수송재용	정은희	최인석	